

본당 사목방향
“ 작게, 낮게, 함께 ”

주임 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GUANGZHOU

[다해]
2025년
3월 1일

제1077호

연중 제8주일

지난주 미사참례 87명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들

3월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도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요셉 성월

교회는 해마다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지낸다. 성 요셉 성월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른 아버지인 요셉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의 삶을 묵상하는 달이다. 요셉 성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약혼자 마리아를 주님 천사의 명령에 따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느님 구원 사업의 조력자로 등장한다(마태 1,18-24 참조).

그렇지만 구세사에서 요셉 성인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다. 성경에도 의로운 사람으로서 직업이 목수였던(마태 13,55 참조) 요셉 성인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루카 2,1-7 참조), 헤로데 임금의 폭정 때문에 이집트로 피신하였다는(마태 2,13-15 참조) 기록 정도가 전해진다. 그럼에도 초대 교회 때부터 매우 깊었던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3월 19일이 요셉 성인의 축일로 자리 잡은 것은 12세기 무렵이다.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에게서 탈환하려는 십자군은 요셉 성인을 공경하고자 나자렛에 교회를 세웠다. 그 뒤로 성인에 대한 공경과 축제는 주로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전파되었다.

1479년에는 식스토 4세 교황께서 요셉 성인의 축일을 모든 교회로 확산시키셨다. 1870년에는 비오 9세 교황께서 요셉 성인을 ‘거룩한 교회의 수호자’로 선언하셨다. 한편 1955년에 비오 12세 교황께서 해마다 5월 1일을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로 지내도록 선포하셨다.

우리나라는 교회 설정 초기 조선대목구가 속한 북경교구의 수호성인인 요셉 성인을 조선 교회의 수호성인으로 모셔 오다가, 1838년 앵베르 주교의 요청으로 요셉 성인과 함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모셔 왔다. 그 뒤 주교회의 2015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오직 한 수호자만 모셔야 한다는 교황청 경신성사부의 의견에 따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만을 한국 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정하였다.

성 요셉 성월 기도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 주소서.
- ◎ 아멘.

(『가톨릭 기도서』 개정판)



사순시기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때이다. ‘사순’(四旬)은 본디 ‘사십 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이 숫자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한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사십 일 동안 재를 지켰고(탈출 34,28 참조), 엘리야는 호렙산에 갈 때 사십 일을 걸었다(1열왕 19,8 참조). 예수님께서도 공생황을 시작하시기 전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마태 4,1-2 참조). 이처럼 ‘사십’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정화의 기간을 뜻한다.

파스카 축제를 기쁘게 맞이하려면 이 사순 시기 동안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기간에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금육과 단식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한다. 교회는 금요일마다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단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키고 있다.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의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6조 참조). 이러한 희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으로 완성되게 해야 한다.

사순 시기 동안 거행하는 전례는 신자들이 파스카 축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 기간의 미사 때나 말씀 전례에서는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는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의 색깔은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신자들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침으로써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그 뜻을 새긴다.





세방골성당 주임
김상조(대건안드레아) 신부

말씀 KEY WORD

들보
(도코스 δόκος)

들보로 번역하는 ‘도코스’는 집을 세울 때 사용하는 기둥을 가리킵니다. 오늘 복음의 들보는 심판에 물든 우리의 완고한 시선을 가리킵니다. 이웃을 향한 신앙인의 시선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상대를 존중하는 회개입니다.

② 연중 제8주일

주일의 강론

선입견의 들보

구슬만한 작은 눈동자 속에 사과 상자만한 들보가 들어있으면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 못 보는 사람이란 말은 실제로 앞 못 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즉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른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에 따라 쌓아놓은 선입견이라는 들보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대부분은 이 선입견의 창을 통해 본 것이어서 눈앞의 사물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고, 창문에 그려진 저 그림 기법이 바로 스테인드글라스라는 거야~” 모두 일반적인 사실들을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 각자 안에 자리 잡은 제각각의 선입견적 지식들로 말하고 받아들입니다.

제대는 보기 좋게 깎아놓은 바위이고, 스테인드글라스는 여러 가지 색유리들로 보기 좋게 끼워 맞춘 창문입니다.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은 제대를 보고 조리대나 식탁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적당한 장식장이나 침대로 사용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각자 자기만의 들보를 가진 눈으로 본 것에 지나지 않고,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진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결론적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소경에 지나지 않지만, “이렇게 큰 기둥들이 왜 여기 저기 서 있어서 길 가는 사람을 방해할까요!”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큰 기둥들이 정말 축감이 부드럽고 좋군요, 편안하게 기댈 수 있어서 참 좋아요!”라고 말하고 나면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기 얼굴이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이 필요합니다. 뒷모습을 확인하려면 두 개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입맛에 맞게 비추어주는 자기만의 거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혜라는 거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배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입당 280

입당송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 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

제1독서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27,4-7

4 체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5 옹기장이의 그릇이 불가마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6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7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 님, 당 신 을 찬 미 하 오 니 좋 기 도 하 옴 니 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울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

제2독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54-58

형제 여러분,

54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

55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56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58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 알렐루야.

복 음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39-45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39 이르셨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41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43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44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4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봉 헌 218, 210

영성체송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성 체 153, 163

파 견 460

■ 오늘 공지사항 시간에 2024년 결산 및 2025년 본당 예산
관련 재무 보고가 있습니다.

2025 첫영성체반 시작 예식

오늘 미사 전 2025년 첫영성체반 시작 예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9개월의 준비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기쁘게 첫영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2구역 1반	이재환 가브리엘 이재훈 미카엘	이충섭 라파엘, 유아름 라파엘라 가정
2구역 2반	배주하 미카엘라	배기방 프란치스코, 김언정 율리아나 가정
	윤지우 에스텔	원혜진 율리아나, 윤종혁 가정
	임시원 스텔라	임준홍 루카, 황지현 체라 가정
3구역 1반	박규리 요안나	박기형 알베르토, 이성옥 엘리사벳 가정
3구역 3반	김태림 마리스텔라	김득수 요셉, 김혜영 루시아 가정

■ 유아세례 안내

오늘 미사 전 3시 15분 유아세례식이 있었습니다.
2구역 1반 이충섭 라파엘, 유아름 라파엘라 가정의
<이재환 가브리엘, 이재훈 미카엘> 어린이 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두 어린이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부탁드립니다.



성지가지
회수합니다.

기간 : 2월22일~3월1일

■ 3월 구역 협의회 월례회의 ■
3월 8일(토) 미사 후, 사무실

지난 2월 9일 김도기 아우구스티노 형제님의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우들께
드리는 약식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2팩(1인 가정은 1팩) 씩 나눔을
하오니, 미사 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025 주일학교 봄학기 등록 신청 안내

찬미 예수님,
지난 5년 동안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주일학교가 올해 새로운 반구성과 교리계획을 세우고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반구성

초등부 | 첫영성체반 | 중고등부

✓ 미사

4시 교중미사를 함께 드립니다.
단, 매월 넷째 주는 어린이 미사로 봉헌합니다.

✓ 다시 시작하는 '중고등부'

중고등부 교리 수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틀에 박힌 교리 수업이 아닌 다양한 활동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 가정 미사 주일

5주가 있는 달은 마지막 주를 가정 미사 주일로 정하여, 교리 수업 없이 가족과 함께 미사에 참여합니다.

✓ 전례력 관련 공통 교리 수업

매 학기 3회의 공통 교리를 통해 전례력 관련 교리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1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기별로 공통 교리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대해 배워 봅니다.

? 청소년 봉사증은 관련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주일학교는 우리 공동체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늘 고민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첫영성체반

중고등부

초1~초6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초3~초6

중1~고3

간식과 교리 : 오후 2시~ 3시 30분 || 미사 : 오후 4시 교중미사

등록비 : 300元/1인(모든 학년) || 개학 : 3월 8일 || 신청기한 : 2월 15~3월 8일

신청 문의 : 교장 진혜영 루시아 139-2227-4294

推荐使用微信支付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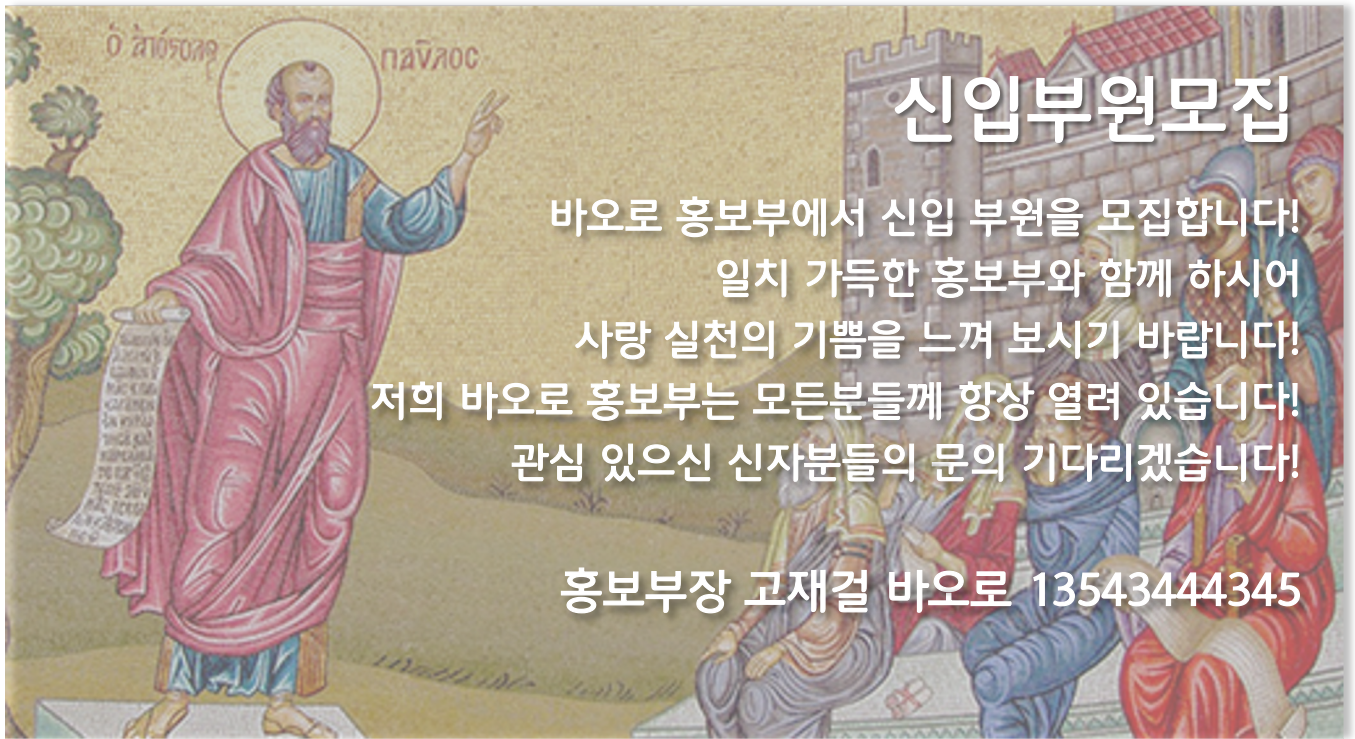
광저우 주일학교(***(G))



微信支付

신청시 결제 전,
메모 추가를 하여 반드시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들을 '바오로 홍보부'로 초대합니다!



신입부원모집

바오로 홍보부에서 신입 부원을 모집합니다!
일치 가득한 홍보부와 함께 하시어
사랑 실천의 기쁨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오로 홍보부는 모든분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신자분들의 문의 기다리겠습니다!

홍보부장 고재걸 바오로 13543444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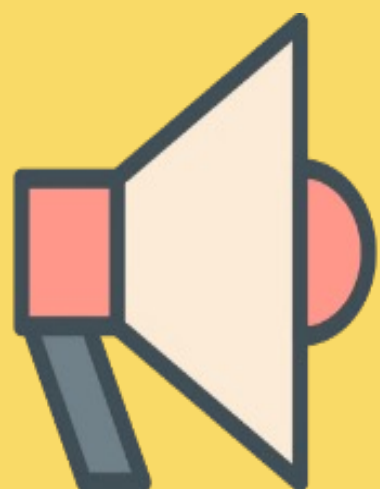
홍보의 주보성인 바오로 사도

천주교 광주 한인공동체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수행하며
서로 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바오로 홍보부가 있습니다.
한결 같은 일치가 돋보이는 저희 바오로 홍보부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즐거운
홍보부 모임

홍보부에서는 주보제작, 홍보책자발행, 사진 및 동영상촬영,
기념 영상제작, APP관리, 강론 녹취 등의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업체 광고주 ~님
더욱 번창하시는 2025년 되시도록
은총이 함께 하는 주보 광고 ! 열렬히 모집합니다.
많은 문의, 신청 바랍니다.

APP&주보 고정 및 개인 광고 문의, 신청
홍보부 고재걸 바오로 13543444345





2025년 교무금 약정을 시작합니다.

찬미 예수님,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금주 토요일부터 2025년 교무금 봉헌 약정서를 받습니다.

새해 교무금 약정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봉헌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해 봅시다.

- 1 늘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 2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 3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교무금을 책정합니다.
- 4 매월 잊지 않고 교무금을 납입합니다.

교적이 한국에 있고, 가족이 한국에 별도로 교무금을 내고 계시더라도
광저우 공동체에도 일정 금액의 교무금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무금 납입은 가톨릭 신자의 의무이지만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봉헌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 12. 9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주임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총회장 강창구 베네딕토

지난 주 교무금 납부자 (토요일 정오 이후 위챗 수령은 2주 후 게재. ㄱㄴㄷ 순)

신보식 안토니오, 오은주 아셀라, 임준홍 루카, 이충섭 라파엘, 차준연 안드레아

※ 교우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납부 방법

1. 미사 전 현금 납부 - 성당 입구 재무데스크

2. 위챗페이 납부 ID akim1231(김은숙 아가다) / thea721219(전은옥 테아)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를 아십니까?!

① 미사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

✓ 의무 축일 미사

-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 부활 대축일 (3-4월 : 날짜는 매년 달라짐)

② 금육과 단식

- 금육 : 모든 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 단식 : 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 ☞ 금육과 단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으로 이어져야 함.

③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 성사

-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

④ 적어도 1년에 한 번 영성체

- 부활 대축일

⑤ 교무금

교회 유지비 부담의 의무이며, 매년 일정 금액을 약속하여 납부한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에 교무금을 책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⑥ 교회의 혼인법 준수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침 / 저녁 기도는 신자의 기본입니다!!

우리 가정의 교무금 상황을 점검해볼까요?!

‘교무금’은 ‘교회 유지비’입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선교와 사목 활동,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 교역자들의 생활비 등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가 있다.

(교회법 222조)

“신자들은 주교회이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65조)

교무금은 교구와 본당 운영과 사목, 선교, 자선 사업, 교회 시설 유지와 사제 및 교회 직원 생활비 등에 사용됩니다.

교무금은 개인이 아니라 신자 가정 단위로 매달 얼마를 낼 것인지 책정합니다.

가정 총수입의 얼마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인데 통상 ‘30분의 1’ 즉 한 달 30일 중 하루 수입금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삼십일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 공동체의 특성상, 가족이 한국에서 교무금을 납부하더라도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에도 일정 금액 교무금을 내 주어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도 교우 여러분의 교무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무금은 책정하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재무데스크로 가셔서 책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한국에서 교무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시더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에도 책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책정하시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납부는 깜박하지 않고 잘 내고 계신가요?

교무금은 월1회 정기 납부가 원칙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한 달이 금방 지나가지요.

잊지 마시고 꼭 매월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너무 바쁘신 분들은 미리 선납도 가능합니다.

교무금을 책정만 한 채 납부를 잊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휴우

h y u w o o

주장신청 지역에 위치한 아트와 플라워 아뜰리에, 휴우입니다.
휴우는 미술 수업과 프렌치 스타일의 꽃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 수업>

- 기초 과정
- 심화 과정
- 전문가 과정

<미술 수업>

- 킨더반
- 저학년 (초1~초5)
- 고학년 (초6~고등)
- IB art
- IGCSE art

<성인을 위한 미술수업>

- 서양미술사반 '엄마가 소개하는 오르세'
- 취미 미술반

문의는 위챗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위챗 아이디 alicia-luby

문의 상담 186-2041-3347



SBC SC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kotra 코트라 지정
청산 컨설팅 수행 기관 선정



MY컨설팅



여러분 곁에 필요한 전문컨설팅 그룹이 있습니다!

2004년 창립한 저희 마이컨설팅은 광저우시 공상국의 허가를 득한 전문컨설팅 기업으로서, 광동 성외상투자기업협회 회원이며, 광동성 재정국으로부터 “대리기장허가”를 받은 전문기업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축적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경영활동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지식 전파 및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설립 전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설립 이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 외/내자법인
- 홍콩법인
- 법인청산
- 경영범위변경

거류증신청

- 취업비자신청
- 가족비자신청

대리기장

- 소규모/일반납세자
- 수출관세환급
- 연말회계결산보고
- 각종절세방안자문

전문허가

- 식품경영허가증
- 수출입권한 신청
- 상표등록

▶ 최근 교민들의 비자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 + 거류비자 신청까지 特惠套餐

▶ 한국전문가 직접상담 해드립니다.

(Tel:13682288114 Wechat: fudan100)

전문 거류비자 대행

주의사항

최근 중국 관련기관에서 외국인 거류허가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으며,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은 물론, 해당법인까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신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안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MY컨설팅

清德投资管理(广东)有限公司

무료상담전화(한국인) 136-8228-8114

TEL: 020) 3803-2588 / 3803-2511

ADD: 广州市天河区珠江新城华夏路49号津滨腾越大厦北塔1305室

최첨단 의료 설비
최고의 한국의료진 상주진료

광저우 은해치과

3D와 CT를 확인하여
안정된 위치에 식립하는 **임플란트**
소아 / 청소년 / 성인교정

은해치과는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잇몸 성형 | 라미네이트 | 올세라믹 크라운 심미보철

깨진 치아 때문에, 변색된 치아로 인해
너무 작아 어색한 왜소치아로
자신 있게 웃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은해치과에서
자신 있는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병원 - 은해치과

예약 및 응급전화 **185-2007-0880**

广州市白云区同和广州大道北2170-2172号
地铁：同和站C出口 南方医院方向 50m前方
同和 지하철역 C출구 남방병원 방향으로 50m

 HOURS
진료시간

【진료안내】 화~토 09:00 ~ 18:00

【휴진안내】 매주 월요일/일요일



广州大道北

Y 同和站C出口
云东小区
● 银海口腔



金石酷酷 진스쿠쿠

따뜻한 한끼의 소중함!

장영심 모니카

위챗 eelvis123

135-8037-0511

番禺大石朝阳东路162号



소문내주세요

미락

백운구

웬징루에

자리잡았습니다!

OPEN

했어요!

가격은 저렴하게
더 신선하고 더 푸짐하게
모시겠습니다!

광어회 190 / 찰광어 260 / 방어회 270

웬징루

■ KFC

■ 풍무웹성

■ 중화루

미락



오늘의 숙성 **모듬회**

회정식 전문점

회 **포장** 가능합니다.

점심저녁 영업합니다



위챗추가

예약문의

13826129063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GUANGZHOU

미사 시간 : 토요일 오후 4시 석실성당
일요일 저녁 7시 석실성당 내 경당
수요일 오전 10시 석실성당 내 경당

미사 장소 : 广州市 越秀区
一德中路 旧部前 56号 石室教堂

+ 고해성사 : 오후3시 반부터
+ 유아세례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매월 첫째주까지 구역장에게 신청]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APP
gzkorcc.com

✓ 설치전에 구버전 성당APP은 삭제 하시고 설치해주세요!



주보발행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바오로 홍보 위원회

APP&주보 고정 및 개인 광고 문의 ,신청
바오로 홍보 위원회 - 고재걸 바오로13543444345